

# 팔죽공양·군부대 위문 “바빠요”

## 신행현장

### 자비실천 찬불가회 한영옥 회장

“팔죽 드시고 가세요! 따뜻하고 맛있는 팔죽입니다!”

22일 동짓날, 부산역 광장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팔죽 잔치가 열렸다. 자비실천찬불가회(회장 한영옥, 범명 대각행) 회원들이 지난해 이어 팔죽 공양을 준비한 것이다.

예로부터 동지는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설날로 삼기도 했는데, 이날 부산역의 풍경은 꼭 설날 잔치 같다. 한쪽에선 국악인들의 공연이 열리고 또 한쪽에선 동지팔죽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천여 그릇에 달하는 팔죽을 대접해야 하는 큰 잔치이고 보니 이리 저리 죽 그릇을 나르는 보살들의 손놀림은 실림이 없다.

“지난해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만 두려 했는데, 동지가 다가오니 쉴을 보시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공양이 들어오니, 심부름꾼인 내가 안할 수가 있어야죠” 팔죽 잔치를 치른 주인공인 한 대각행(64세) 회장은 한사코 주위 분들의 도움에 공을 돌린다.

94년 자비실천찬불가회를 만들 무렵의 일이다. 대각행 회장이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병원에 같이 봉사 다니는 보살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

다. “타종교는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송가를 들려주는데 불교합창단이 없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한 대각행 보살은 이 소식을 듣고 병석에서 일어나는 즉시 합창단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합창단이 조직되자마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연락처를 알았는지 곳곳에서 ‘합창단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

### 합창단 없는 사찰

### 어디든 달려가 봉사

### “내 한몸 수고하면

### 여러사람 즐거운데...”

아’ 시작한 일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비실천을 행하는 합창단이 되었다.

사찰에 등록된 합창단이 아니어서 합창단이 없는 사찰, 단체 등 어디든 달려가 봉사를 해 줄 수는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 충당에 어려움이 많다. 한 대각행 회장은 “지난해 팔죽 공양 준비 때도 재정확보가 어려워 두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며 다시는



동짓날인 22일, 자비실천찬불가회 회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팔죽잔치를 열었다. 한영옥 회장(사진 가운데)이 죽을 나르고 있다.

시율이 붙어진다. 그래도 한 회장에 게 포기할 없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도움을 청해 왔을 때 형편이 허락지 않자 이자 돈을 빌려서 건네줬을 정도로 배종과 도와주는 것을 내일처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못한 모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는 일 아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한몸 힘들어 수고하면 그분들 마음을 어 려운 이들과 연결시킬 수 있으니 건 강이 허락하는 한 할 겁니다.”

“노래 실력은 아마추어지만 봉사의 마음만은 프로급”인 자비실천찬 불가회가 그동안 해온 봉사 또한 감 히 흥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다. 상주 수행지구엔 몇 트럭분의 옷, 먹을 것, 이불 등을 싣고 간 것과 김래

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 문공연 및 떡, 단주, 과일 등을 공양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행사에 합창단이 없어 어 려움을 겪는다면 달려갔고, 주머니 돈을 털어주고 돌아오곤 했다. 이제 60명에 달하는 회원들도 한 대각행 회장의 격의 없고 꾸밈없는 실천행에 반해 신심을 내어 활동하고 있다.

“봉사와 자비실천은 부처님께서 주신 숙제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결 코 물러서거나 피해서는 안된다”는 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세생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비실천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하는 서한 하나로 아픈 다리도 있고 사람들 마음 모으 기에 빠진 겨울해가 더욱 짙다. 문의 011-859-154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지난 시간 참회없이 새 희망 구상 힘들어”

또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월권의 텅 빈 하늘을 날아가는 겨울새들이 더욱 작아 보이고 날 카로운 바람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많은 불우이웃들이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허전 해 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했고 사회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구촌에는 느닷없이 테러의 공포가 엄습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라도 잠잠하면 안 되는 곳 인가 봅니다. 해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많은 일을 뒤로하고 시간이 흘러 다시 새해를 맞이 하는 것이 역사의 쳇바퀴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 거짓 허물 제거해야

### 모든 소원 성취돼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따르는 불자들이입니다. 그러나 절대 뒤죽박죽으로 영긴 세상의 혼란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안 됩니다. 바깥세상의 혼란을 내면으로 끌어들이 스스로 혼란한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옛 선사들은 “일 없는 사람이 진정 귀한 사람”이라 했지요. 스스로 번잡한 망상으로 세상의 혼란을 안으로 끌어들이 세상과 당달아 복잡한 마음으로 얽혀 있는 사람은 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진리의 꽃대를 바르게 응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때에 진정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 혼란이 어디에서 근원하였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르게 알면 해결책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도후스님

철원

심원사 주지

새로운 해에 큰 기대를 걸고 희망을 설계합니다.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새 것을 새롭게 맞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 구상하는 희망은 영성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철저히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구상해서는 안 됩니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깊은 허물과 악연으로부터 깨끗하고 선한 인연의 바탕으로 마음을 바꾸는 통로가 바로 참회입니다.

부처님은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 천 겁 동안 지은 모든 불선업(不善業)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뒤으면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다”고 참회를 설명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바빠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과 죄를 지어 두려움을 위장하고 그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영원히 가려지는 죄도 없습니다.

천지만물이 다 몰라도 자기 자신만은 알기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마음을 바꾸어 텅 빈 바탕에 새해의 밝고 신명스러운 기운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부실공사가 될 거짓과 비밀, 허물을 다 제거했으니 새로 설계하는 희망과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세상은 떠들썩해서 우리 불자들은 조용하게 지난 시간을 참회하면서 새해를 일뜰 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행 캘린더

12월 26일 (수)

■법정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학법당에서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진흥원 종법스님 초청 송년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종법스님 초청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719-1855

12월 27일 (목)

■경승화동화상회 기원법회=강원불교연합회는 오전 11시 춘천 배어스타운 대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경승화상 원행스님을 법사로 사회안정과 경승화동 화상회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033732-4800

■박원일법사 초청법회=부산 불교실업인회는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필름에서 박원일 법사 초청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51818-9914

■화성 신홍사 청소년 겨울수련회=화성 신홍사는 30일(토) 3박4일 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41차 겨울 수련회를 연다. 기도참선, 찬불가와 율동, 108배 용맹정진, 발우공양, 심성수련 등으로 진행된다. 031375-2695

12월 29일 (토)

■통도사 회암산림 대법회=양산 통도사는 오전 10시 통도사경원장 월운스님을 법사로 화엄산림대법회 및 무량위배 봉안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182

12월 30일 (일)

■한미음선원 학생회 수련회=한양한미음선원은 충북 음성 광명선원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2박 3일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출발은 9시 30분 안양 본원. 031470-3100

■법장사 가족법회=법장사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주지 퇴후스님을 법사로 가족법회를 갖는다. 02971-0303

12월 31일 (월)

■조계사 송구영신 등불축제는 서울 조계사는 오후 10시 대웅전 앞에서 송구영신 등불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송구영신 등불축제는 주지 지홍스님의 법문과 탑돌이, 점화, 타종, 풍물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02732-2115

■터사랑 성지순례=터사랑은 오후 9시 안국역에서 출발, 여천 향일암과 진남루, 오동도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02722-9747

## 생활속의 불교

## 내가 곧 진리의 길

가르침에는 선문(禪門)과 교문(敎門)이 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말의 방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말이나 문자에 얽매이면 자연히 편견의 세계-알음알이가 따르게 되니 선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불성이다. 진여다. 부처다. 여래다. 이들을 붙여 놓고 한편으로 이를 다시 부정한다. 이를 불입은 교문의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 느껴진다.

법에는 불구부정, 불생불멸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인연따라 나투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이 있다. 하나는 절대 세계를, 또 하나는 상대 세계를 말하므로 진여의 법과 생멸의 법은 엄연히 달라 보인다. 중생의 눈에는 그

렇다. 그러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불이의 법에 이르면 둘은 같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불법이 뭐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사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비논리적인 까닭은 교문으로 들어온 이를 선문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생멸법의 잣대로 분별 사랑하는 것을 깨뜨려 진여법에 눈 뜨게 하기 위함이다.

가령 불법이 뭐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스승이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자상하게 일러줬다고 하자. 그러면 ‘아하, 불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스승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시

비, 논쟁, 주장, 분별, 가치 판단 따위로 가득 차 있는 한, 불법은 언언어에 부딪힌다. 그래서 불교는 또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 만큼 쉽다고 말하는 선사도 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짐짓 역설로 그런 것이 아니다. 생멸의 법도 내 살림 속에 있고 진여의 법도 내게 있으니 자신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불법이요, 불법 공부의 전부라는 것이다.

선문 교문이다 ‘나’로 귀결되고 생멸법 진여법이다 ‘나의 것’이니 ‘나’ 이외에 따로 의지할 곳은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처는 너뿐’이라는 자등명(自燈明)을 이룬다. 따라서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다. 龍眼

## 특허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원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 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땀이 있어 착용감이 아주편함.
- ◆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리움을 더한 장삼.
- ◆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종류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중 방	남·여	120,000
누비	상 방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기방	중	28,000
		소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 지역 판매점 모집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 기원섬유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궁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사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 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열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